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 <125>

독감 및 폐렴의 이해

전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김태욱 교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석사)
-전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임상조교수



독감보다 무서운 합병증

노인·임산부 폐렴 위험↑

3월까지 독감 감염주의보

예방접종 70~90% 효과

손 씻기·기침예절 위생 필수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독감과 폐렴이 있다.

독감(인플루엔자)은 12월에서 3월까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만 발생한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핵심 구성에 따라 크게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A형과 B형이 대부분 사람에게서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감은 인류 역사에서 여러 차례 대유행을 통해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1918년 유행한 스페인독감이다. 무려 2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에는 2009년 신종 플루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플루로 인해 1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했다.

독감은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물방울(‘비말’이라고 함)들이 1~2미터 이내를 날아가 직접 다른 사람의 손에 묻거나 호흡기 또는 눈을 통해 주로 감염된다.

일부에서는 바이러스가 묻은 물체의 표면에 다른 사람의 손이 닿고, 다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호흡기 또는 눈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로 배출된 바이러스는 접촉된 곳에 따라 생존 시간이 달라지는데 고체이고 딱딱하며 구멍이 없는 표면의 경우 24시간까지 생존한다. 사람의 손에 묻은 경우는 대부분 5분 이내에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되면 대부분 즉시 파괴되기 때문에 손 씻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독감예방 중 하나다.

독감의 증상은 일반적인 상기도 감염(감기)의 증상과 유사하지만 크게 2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독감에 걸린 환자의 경우에는 감기와 달리 고열과 심한 근육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독감 검사가 필요하다.

독감은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와 휴식만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59개월 이하의 소아,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간경화, 만성 폐질환 등의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나 기저 질환의 악화와 같이 합병증을 동반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의 치료 약제로는 타미플루(오셀타미비어)가 있는데, 보통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병의 경과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독감은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예방법

으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매년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손 씻기를 자주하며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개인위생법은 독감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예측이 잘 맞았다면 일반인의 경우 70~90%까지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2월 그 해 유행할 독감을 예측해 발표하고, 이후 토대로 그 해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매년 독감이 유행하기 1달 전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독감과 달리 폐렴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겨울철에 발생빈도가 더 높다.

폐렴은 대부분은 입속에 존재하는 균의 미세흡입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그 밖에도 결핵이나 독감처럼 균을 흡입하는 경우 또는 균이 혈액을 타고 폐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

폐렴 증상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을 때 발열과 오한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5일에서 2주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회복된다. 다만 고령이나 다른 만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시행하더라도 폐렴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뇌막염이나 패혈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줄여줄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만 의료진들이 화순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 복강경 위절제수술을 참관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수술전학 선진지 떠오른 ‘화순전남대병원 위암 클리닉’

대만 의료진 견학 잇따라

전국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위암 클리닉(부장 류성엽·위장관외과 교수)이 대만 등 전세계 외과 의사들의 수술 견학 선진지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최근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시 ‘장공기념병원’에서 큐오 링웨이 교수 등 의료진 5명이 방문한 데 이어 ‘타이중 의대병원’에서도 리우 신칭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병원을 찾아 수술현장 등을 참관했다.

대만 의료진들은 화순전남대병원 박영규·정오·정미란 교수 등의 수술 과정을 지켜본 뒤 “정교한 수술기법으로 수술부위 출혈이 적고, 봉합방법도 뛰어나다”고

찬양했다.

리우 교수는 “한국처럼 대만도 위암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선진적인 복강경 수술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병원환경과 첨단 의료 인프라도 매력적이다. 화순전남대병원과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위암 클리닉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은데, 그 바탕에는 내·외과의 실력 있는 의료진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류성엽 부장을 비롯한 박영규·정오·정미란 교수, 전임의·전공의, 다수의 전문간호사들이 유기적인 팀을 이뤄 탄탄한 진료·수술역량을 펼치고 있다.

박영규 교수는 지난 2012년 미국복강경외과학회에서 진행형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근치적 복강경위암수술을 하는 모습이 상영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이름난 명이다. 류성엽 교수는 배꼽을 통한 최소 절개로 위 속의 종양을 제거하고도 흉터가 남지 않는 수술법을 개발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조기 위암 수술시 내시경이 아닌 복강경 카메라를 이용하는 수술법을 처음 개발하기도 했다.

정오 교수도 독창적인 수술법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으며, 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자상’을 최근 4차례 수상한 데 이어 일본 위암학회에서는 두 차례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병원 ‘직업병 진단’ 호남 유일 최고등급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배학연)은 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7년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평가’에서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호남지역 대학병원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중금속·소음·분진 등 다양한 유해인자(179종)에 의한 직업병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06개소를 대상으로 ▲진단 및 분석능력 ▲시설 및 장비 ▲진단 신뢰도 ▲교육 이수 등 73개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평가등급은 S·A·B·C 등 4개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료진들이 호남지역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등급으로 나뉜다. 조선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이번 S등급 획득으로 건강 관리 시설 및 의료진의 수

준이 전국 최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소비자만족지수 3년 연속 대상

밝은광주안과(대표원장 김재봉·사진)가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18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고객만족브랜드(시력교정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미디어마케팅진흥원에서 주관한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각 산업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소비자가 각 분야



이후 최근까지 수술 1만례를 달성했다.

별 상품 및 서비스 만족도를 직접 평가한다.

밝은광주안과는 광주 최초로 2013년 안구건조증 없는 스마일 수술을 도입한

밝은광주안과는 또 스마일 수술기법 생산업체인 독일 칼자이스사에서부터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에도 선정됐으며,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시력교정 대상’도 수상했다.

김재봉 대표원장은 28일 “소비자가 직접 뽑아 주신 상을 3년 연속 받게 돼 영광”이라며 “호남대표 안과의 위상에 걸맞게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토지 매매 (금호동)

상무지구에서 서광주역 가는길

(도로 접합)
현재 자연녹지

- ① 계획도로 확장예정
- ② 진입도로 용이(자제창고,식당 가능)
- ③ 평당 240만

◆ 매매가 : 13억5천8백

010-6670-9800 062)382-5500

무안 펜션 경매 추천

무안 망운 리조트 (툼머리해수욕장) 광주에서 40분

최고물건 임대(월2000만 가능)

토지 614평
건물 145평
(아파트형, 객실 13개)

경매일:1월29일

감정가 11억 5천

최저가 6억 4천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1) 이론 실전문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할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 ① 북구 신원동 용두주공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3천3백 → 최저가 9천3백
- ② 북구 일곡동 현대아파트(24평)
감정가 1억4천2백 → 최저가 9천9백
- ③ 서구 생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가 5천3백 → 최저 2천9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서구 내방동 (건물)
토지:80평 건물:114평
감정:3억6천 → 최저:3억6천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3) 광산구 수원지구 (원룸빌딩)
감정:7억2천 → 최저:7억2천

4) 나주 성북동 (근린주택)
감정:32억 6천 → 최저:18억 2천

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9억6천 → 최저:6억7천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7백 → 최저:1억8천7백

7) 전북 군산시 평화동 (근린상가)
감정:12억1천 → 최저:4억1천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9) 화순 도곡면 천암리 (무인텔)
감정:37억4천 → 최저:20억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11)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지:232평 건물:114평
감정:14억5천 → 최저:14억5천

A.P.T·주택·공장·토지 (기타)

-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 ④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 ⑤ 북구 운암산아우렛세인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 ⑦ 광산구 수원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 ⑧ 서구 마름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 ⑩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 ⑪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숙박,콘도)
감정 1억4천5백 → 최저 7천6백
- ⑫ 전남 영암군 삼호읍(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5억3천

010-6670-9800 062)382-5500